

“송사리와 버들치, 작은 붕어들의 만남”



손목
영화식품(주) 환경안전팀 차장

여의도의 작은 섬 양말 산.
저의 어린시절은 여의도 양말 산이라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저의 집은 멀리까지 보이는 밤섬, 맑디맑은 새파랗게 보이는 한강, 그리고 작은 냇강이 구비 구비 흐르는, 더 멀리서는 밤섬의 나루터까지 잘 보였습니다. 하늘은 솜털과 같이 파랗게, 아주 파랗게 푸르게, 맑은 날이 많았으며, 한강물은 너무나도 맑디맑아 영등포와 여의도를 잇는 작고, 좁은 나무다리가 있었는데, 나무다리 밑에 흐르는 물이 너무나도 맑아서, 바닥에 비치는 매우 작은 모래가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곤 했습니다.
한겨울에는 아이들과 함께 눈을 한 움큼씩 뭉쳐서 솜사탕이라며 서로 먹여주던 곳, 여름철에는 초등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면, 작은 나무다리 냇강에서 여러 친구들과 깨벗고 해 저무는 줄 모르고 물장구치면서, 갈증이나 목마르면 조금 상류쪽으로 올라가서 냇강물을 마시고, 한참 후에야 배가 고파서야 집으로 돌아오곤했던 곳, 여의도 양말 산.
산 아래 아랫동네 한 가운데 있는 큰 우물가에서는 빙 둘러앉아서 빨래하는 아주머니들의 틈에 아이들의 재잘거림 소리들, 당시에는 어느 누구집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빨래하는 빨래비누와 같은 세제류가 매우 귀한 때라 어느 누구라도 아껴서, 아주 적은량을 사용해서 인지, 빨래터 개천에는 송사리, 버들치, 작은 붕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빨래하시는 아주머니들의 아이들은 빨래터개천가의 물 풀들이며, 작은 수풀 속에 숨어있는 고기들을 잡으려고 함박웃음을 짓고, 물장난을 치면서, 한참 신이 나있을 때면, 어느새 빨래터 아주머니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빨래한 옷가지들을 광주리 담아 머리에 이고, 어린아이들의 손목을 잡으며 바쁜 걸음걸이로 한분, 두 분씩 총총히 집으로 가시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매연, 항상 쉽게 구하여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풍족한 세제류들. 생활의 편의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구, 물질들로 인하여, 하늘과 땅, 물의 오염은 산업현장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린시절의 동화같은 맑고 푸른 하늘, 땅, 물의 생각이 자주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가 손쉽게, 아주 손쉽게 파란하늘과 땅, 맑은 물을 위하여 미약하나마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필요이상의 기구, 시설, 물질들을 남용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환경을 항상 생각하며, 환경으로 인하여 실생활을 영유하는 한 사람으로서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물려 줄 수 있게끔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아~~~~ 어린시절의 함께 했던 작은 나무다리 냇강물들과 버들치, 송사리, 작은 붕어들아 니들이 보고 싶구나...